

‘통합·화합’ 유지 받든다...장례위 2222명 구성

황교안 총리 위원장...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포함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가 고인의 유지인 통합·화합 정신을 살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2222명으로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 규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 1404명보다 800여 명이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의 2375명보다는 150여 명이 적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 부위원장으로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천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다.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와 달리 대법관 1명이 빠지고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이 들어갔다. 민주동지회는 민주화운동 시절 신민당 등 야당과 민주선악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문민정부 시대를 연 통일민주당 출신 상도동계 인사의 모임이다.

고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전·현직 헌법기관장, 주요 정당 대표, 광복회장, 종교계 대표 등 10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에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경환 기재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장례위원회에는 국회의원 및 국

회사무처 고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기관 고위직, 행정부 장관, 각종 위원회 위원장, 3군 참모총장, 시도지사,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 경제·언론·방송·종교계 등 각계 대표에 더해 유족 측이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갔다. 정부 추천 인사는 808명, 유족 추천 인사는 1414명이다.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원칙은 ▲국가장을 엄숙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직 주요 인사와 전직 인사를 포함하고 ▲사회 각계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여러 분야에 걸쳐 대표성 있게 선정하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친지와 지인은 가능한 한 존중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이 전직 대통령 등 정부 추천 인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이번 장례위 구성은 고인의 뜻대로 ‘통합·화합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 상도동 사저 ‘민주화 성지’ 보존키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울 상도동 사저를 ‘민주화 성지’로 영구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은 수십 년에 걸친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라며 “김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가 계시지 않더라도 후대에 이런 역사를 알리기 위해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김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을 포함해 전 재산을 ‘김영삼 민주선단’로 기부한 상태로, 자택 인근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있다.

유족측은 그러나 이와 별도로 상도동 자택을 원형대로 유지한 기념관 형식으로 남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도서관에는 김 전 대통령의 출생부터 퇴임 후까지의 자료를 전시해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상도동 자택은 ‘인간 김영삼’을 보여주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자체 29곳 분향소 설치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도에 설치된 분향소는 모두 29곳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모두 설치됐다.

각 분향소를 찾은 수천 명의 추모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헌화하며 YS를 애도했다.

특히, 광주시청 1층 시민 숲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4·19 혁명 공로자회 광주·호남지부 회원 등이 찾아와 민주화의 ‘양대 산맥’인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영원을 기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22~26일 5일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게 된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됐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서 1시간~1시간 30분 엄수

미리보는 영결식

첫 국가장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자가 YS 영결식 개시를 선언하면 조약대의 조곡 연주를 시작으로 운구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오고, 고인에 대한 묵념과 고인의 약력 보고, 조사와 추도사 낭독이 이어진다. 추도사 낭독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 측은 “국가장인만큼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김 전 의장이 영결식 때 낭독될 공식 추도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DJ 영결식 당시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의 종교의식, 고인의 생전 영상 상영, 성악가와 소년소녀합창단의 추모공연 등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유족들과 종교의식을 포함한 식순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입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 절차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밖에 영결식 후반에는 상주와 직계 유족, 3부 또는 5부 요인, 외교사절, 각계 대표들의 YS에 대한 헌화·분향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로 일부 또는 전면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고 낭비 없게 국론 분열 없게

국회 대신 서울대병원 빈소 유지 장례위원장 임명 등 정부에 맡겨

‘칼국수 정신’ 계승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첫 국무회의에서 오전으로 칼국수를 올린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칼국수가 청와대 주 메뉴로 등장하면서 식사비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떨어졌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YS의 소박했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장례 절차도 되도록 요란스럽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역대 첫 국가장으로서 서거 사흘만인 24일 오후까지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1만5000명을 넘어섰지만 빈소는 서울대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에 역대 최다선인 9선에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졌던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고려 국회로 대표 빈소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서거했을 때처럼 국회에 시신을 안치하는 등 정치적 위상에 걸맞게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신도 서울대 병원에 그대로

안치 중이다. 시신을 옮길 경우 병장차 등 특수 시설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국고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굳이 옮기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위원장 임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지만 황 총리가 김 전 대통령과는 특별한 정치적 인연이 없는 만큼 상도동계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서거시 장례 절차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지난 2011년 박근혜 이후 첫번째 열리는 국가장인 만큼 최대한 정부에 준비 절차를 맡겨 좋은 선례를 남기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자,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권 70m 44년빌딩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